

고등학생의 부모화와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서 경 현[‡]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안 재 순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Giye Kim
Brigham Young
University-Hawaii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생의 부모화와 자아탄력성이 주관적 웰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고, 부모화와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434명(남: 260, 여: 204)의 고등학생들이고, 평균 연령은 16.18($SD=1.00$)세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자아탄력성, 부정 및 긍정 정서, 삶의 만족 그리고 주관적 행복을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부모화는 주관적 웰빙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물리적 부모화와 정서적 부모화는 부정정서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지만 그 밖의 주관적 웰빙 변인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특히 부모화 하위요인 중에 불공평이 주관적 웰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변인들이 모든 주관적 웰빙 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한편 청소년의 긍정정서, 삶의 만족 및 주관적 행복에 부모화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주관적 웰빙에 대한 부모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자아탄력성이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소년의 웰빙에 대한 부모화의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역할에 관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논의하고, 추후연구의 방향과 임상적 함의를 제언하였다.

주요어: 청소년, 부모화, 자아탄력성, 행복, 웰빙

[†] 이 논문은 삼육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서경현, (139-742)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6-21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화: 02) 3399-1676 E-mail: khsuh@syu.ac.kr

한국인의 행복 혹은 웰빙 수준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낮다는 보고가 있다(서은국, 구재선, 이동귀, 정태연, 최인철, 2010). 게다가 청소년의 행복감이나 주관적 웰빙 수준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한민 외, 2012). 그것은 청소년기에 웰빙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급격한 신체적인 변화를 겪으며 정체감을 형성하기도 힘든데 학업이나 입시의 압박감에 시달려야 한다. 청소년기에는 정체성의 갈등과 혼란, 학업과 진로결정의 부담 등과 같이 웰빙을 위협하는 스트레스원이 많다(Torsheim & Wold, 2001). 게다가 다른 나라 청소년보다 한국 청소년의 경우 더 큰 입시 부담을 가지는 환경에서 학교 수업은 물론 학원 등에서의 과외 공부까지 하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청소년의 웰빙을 위협하는 스트레스원은 가정 내에도 존재한다. 가족 간의 갈등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정 내에서 역할의 변질이 청소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역전될 경우 자녀의 삶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Bowlby, 1980).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하게 되는 부모화(parentification)라는 개념은 Boszormenyi-Nagy와 Spark(1973)에 의해 소개되었다. Gardner, Sauber와 Lorandos(2006)는 부모화를 전세대인 부모의 정서 결핍에 의해 생긴 빛을 후세대인 자녀가 짚는 형국으로 세대 간에서 나타나는 문제성 역동이라고 설명하였다. 부모가 가진 문제로 인해 자녀의 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면 발달선상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아동이나 청소년의 삶이 피폐해 질 수 있다. 이에 연구자들은 부모화가 청소년의 웰빙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

으로 보았다.

일찍이 Boszormenyi-Nagy와 Spark(1973)은 부모화를 자녀가 자신의 부모인양 행동하는 관계의 왜곡으로 보았다.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는 행동이 얼핏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부모에게는 몰라도 아동이나 청소년 자신에게는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어린 나이에 부모화 행동이 형성되면 성장하면서 대인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적절한 행동을 습득하기 어려워지고 성장해서도 상대에 대한 지나친 배려 행동이 오히려 건전한 대인관계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그런 역기능적 배려 행동이 대인관계에서 부조화를 유발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West & Keller, 1991). 게다가 부모화 된 청소년은 대인관계 형성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가정 내에서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가족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는 겨를이 없기 때문이다(Dawson, 1980). 부모화 된 자녀들이 대인관계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박현정, 천성문, 주동범, 2011; Jurkovic, Thirkield, & Morrell, 2001; Peris, Goeke-Morey, Cummings, & Emery, 2008)에서 검증된 바 있다. 대인관계에서의 문제가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의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이경순, 서경현, 2011)로 검증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자들은 부모화가 청소년기의 주관적 웰빙 수준을 낮출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가정 내에서 가족을 위해 시간을 소비해야 하는 것은 청소년이 학업에 열중하는 것을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논리를 지지하는 결과는

Chase, Deming와 Wells(1998)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는데, 학업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 중에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의식이 강한 학생들이 있었고, 이들은 높은 부모화 수준을 보였다. 부모화 된 자녀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Bekir, McLellan, Childress, & Gariti, 1993), 우울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최명선, 강지희, 2008; Byng-Hall, 2002)이 있었다. 부모화 된 자녀가 수치심을 느끼고 죄의식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병리적 자기애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Wells & Jones, 2000). 여러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화가 청소년의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앞서 설명했던 여러 부작용만을 가지고 부모화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정신적 문제를 가진 임상 집단이 아닌 일반 청소년들에서는 부모화 경향이 높은 성취수준(Jones & Wells, 1996)이나 긍정적 자아개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다(McMahon & Luthar, 2007). 부모화 경향이 강한 청소년의 높은 성취 수준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충족되는 않은 욕구를 학업의 성취에서 보상받으려는 노력에서 나온 산물일 수 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가족을 돌보고 부모의 일을 대신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기효능감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긍정적 자기개념을 가질 수 있다(McMahon & Luthar, 2007). 어떤 청소년에게는 부모화가 단기적으로나 표면적으로 긍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Jurkovic, Jessee와 Goglia(1991)는 부모화의 침투적 효과가 개인에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은영, 정태연, 2004)에서는 부모화 된 대학생들이 걸으

로는 적응적 특성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외감을 많이 경험하고 주관적 삶의 질 수준이 낮았다. 그렇기 때문에 Chase 등(1998)은 부모화를 단순히 부모의 부재에서 생긴 공백의 영향이라기보다 복잡한 정서적 현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화가 주관적 웰빙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탐색하고, 그 관계를 조절할 수 있는 변인을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부모화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조절변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하고 본 연구자들이 채택한 변인이 자아탄력성이다. 스트레스원이 많은 상황에서도 긍정적 기분을 유지하고 부정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개인 내적 특성이 자아탄력성이다(Carver, 1998). Block과 Kreman(1996)은 자아탄력성을 스트레스 환경의 불편함과 고통을 인내하고 부정적 반응으로서의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 자아탄력성의 긍정적인 효과는 실증적으로도 검증되었다. 특히 성장과정에서 좋지 못한 환경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자아탄력성이 완충시켜 줄 수 있음이 검증되었다(김유진, 김영희, 2009; 서경현, 김성민, 2009; 유성경, 홍세희, 최보윤, 2004; Garnezy & Sreitman, 1974). 또한 스트레스원이 많은 직무, 예를 들어 병원 종사자(김영희, 서경현, 2011)나 요양보호사(서경현, 최인, 2010)가 직무에서 경험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부정적 반응을 자아탄력성이 완충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도 있었다. 몇몇 연구(Tugade, Fredrickson, & Barrett, 2004; Ong, Bergeman, Bisconti, & Wallace, 2006)에서는 자아탄력성이

긍정정서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자들도 자아탄력성이 웰빙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이 성공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개인 내적 특성일 수도 있지만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일 수도 있다(Masten, Best, & Garmezy, 1990). 이런 추론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예를 들어 몇몇의 연구들(Burns, 1994; Luthar, Burak, Cicchetti, & Weisz, 1997)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우울이나 불안 증상과 같은 부정정서와 정적인 관계가 있거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Ong 등(2006)의 연구에서는 남편과 사별한 여성이 자아탄력성이 강하면 그렇지 않은 것보다 긍정정서는 물론 부정정서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웰빙의 관계, 그리고 청소년기에서 스트레스일 수 있는 부모화와 웰빙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역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나 의미와 같은 기능적인 면이 중심이 된 심리적 웰빙보다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이나 행복으로 대변되는 주관적 웰빙(Ryan & Deci, 2001)을 변인으로 채택하였다. Diener(1984)는 주관적 웰빙을 개인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가로 보았다. 주관적 웰빙의 요인으로 삶의 만족, 긍정정서와 부정정서가 있는데, 삶에 만족하고 긍정정서를 많이 경험하며 부정정서를 덜 경험하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Diener, Suh, Lucas, & Smith, 1999).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김정호, 2007; 서경현, 김정호, 유제민, 2009)처럼 주관적 행복, 즉 행복감을 주관적 웰빙 요인으로 추가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부정정서는 덜 경험하면서 긍정정서를 많이 경험하며, 삶 속에서 행복감을 더 느끼면 주관적 웰빙 수준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서양보다 동양 문화권에서 성장할 경우 부모화 경향성이 강할 수 있어 특별히 한국 청소년의 부모화 경향성과 그 부작용을 탐구할 필요를 느꼈다. 조은영과 정태연(2004)은 유교적 가치관이 스며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예로부터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가 너무 강조되어 왔다고 설명한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넘어 배려 지향적 행동을 하며 어른스러운 아이가 되도록 양육되어 왔다(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하지만 시대가 변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경우 그렇게 양육되지 않았을 수 있어 현 시점에서 한국 청소년의 부모화 경향성과 그것이 정신건강이나 웰빙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부모화와 자아탄력성이 주관적 웰빙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탐색하고, 부모화와 주관적 웰빙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첫째, 청소년기에 있는 고등학생의 부모화가 주관적 웰빙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둘째,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은 주관적 웰빙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셋째, 고등학생의 부모화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조절변인의 역할을 한다. 이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고등학생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부모화와 자아탄력성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상관분석을 통해 고등학생의 부모화의 하위변인 및 자아탄력성과 주관적 웰빙 요인들이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탐색하였다.

방 법

참여자 및 절차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와 서울시에 위치한 두 개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43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 중 1학년 학생이 260명(59.9%), 2학년 학생이 122명(28.1%), 3학년 학생이 52명(12.0%)이었으며, 남학생 230명(53.0%)과 여학생 204명(47.0%)이었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16.18세($SD=1.00$)로 만 14세에서 19세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참여자들은 평균 1.31명($SD=.73$)의 형제자매를 가지고 있었으며, 평균 가족 수는 4.3명($SD=.98$)이었다.

참여자 아버지의 학력은 대학 졸업 이상이 279명(64.3%), 고등학교 졸업은 138명(31.8%), 중학교 졸업은 14명(3.2%), 초등학교 졸업은 3명(0.7%)이었다.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 졸업 이상이 240명(55.3%), 고등학교 졸업은 174명(40.1%), 중학교 졸업은 12명(2.8%), 초등학교 졸업은 6명(1.4%)이었으며, 2명(0.5%)의 학생은 어머니의 학력을 보고하지 않았다. 가정의 경제사정을 상류로 보고한 학생은 10명(2.3%), 중류 중의 상이 52명(12.0%), 중류 중의 중이 276명(63.6%), 중류 중의 하가 85명(19.6%) 그리고 하류가 11명(2.5%)이었다.

부모와 6개월 이상의 별거 경험이 있는 학생이 170명(39.2%)이었으며, 현재 부모 모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350명(80.6%),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이 52명(12.0%),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는 학생이 10명(2.3%), 부모 없이 조부모를 포함해 다른 친척과 함께 거주하는 학생은 22명(5.1%)이었다. 부모 모두와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이유로 7명(8.8%)은 사별, 46명(57.5%)은 부모님 직장 문제, 27명(33.8%)은 부모님 별거나 이혼을 들었다.

설문 전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참여에 동의를 구하였으며, 개인정보의 누출이 없을 것이며 연구 참여를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고 알렸다. 통계분석은 IBM SPSS사의 PASW Statistics 18에 의해 실행되었고, 주요 통계분석은 Pearson 적률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 분석이었으며, 단순주효과를 위해 변량분석도 하였다. 단순주효과 분석은 자아탄력성 상·하위 25%만으로 수행하였다.

조사 도구

부모화: 대상자인 청소년의 부모화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FRS-A(Filial Responsibility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Session과 Jurkovic(1986)이 개발한 부모화 질문지(PQ: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를 Jurkovic, Thirkield와 Morrell(2001)이 다차원적 분석을 위해 재구성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어 척도는 조은영(2004)이 번안한 것이다. 이 척도는 물리적 부모화(10문항), 정서적 부모화(10문항) 그리고 불공평(10문항)와 같은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적 부모화는 기능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일을 돕는 것을 의미하고, 정서적 부모화는 정서적으로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의 마

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며 불공평은 보살피는 행동에서 주고받음이 공평하지 않은 정도를 나타낸다. 이 척도는 5점(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하위척도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물리적 부모화가 .78, 정서적 부모화는 .70. 그리고 불공평은 .85였고, 전체 문항은 .89였다.

자아탄력성. 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은 CPI (California Personality Inventory) 문항 중에 Klohnen(1996)이 자아탄력성으로 구분한 문항들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어 척도는 박현진(1996)이 번안한 것이다. Block (1961/1978)이 자아탄력성을 처음 개념화하면서 관찰을 통해 100개의 목록을 구성하고 그 문항을 Q-sort로 평정한 후 검사를 고안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런 검사를 실시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절차가 복잡해 혼란된 평가자들이 있어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그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Klohnen이 CPI 문항들 중에서 Block의 검사의 점수와 절대치 .20이상의 상관을 보이는 48개의 문항을 추출한 것이다. 그 후 CPI의 다른 성격 변인들과 관계가 깊은 문항들을 제거한 후 자아탄력성을 측정하는 29문항 척도를 타당화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5점(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정 문항은 역환산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신감에 속한 1문항은 낮은 문항 간 상관을 보여 제거하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하위척도 자신감(8문항) .89, 대인관계 효율성(8문항) .85, 낙관적 태도(10문항) .84 및 분노조절은 .72(2문항)이었으며, 자아탄력성

전체 문항은 .94였다.

부정/긍정정서.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는 조명한과 차경호(1998)의 정서빈도 검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검사는 지난 1개월 동안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를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7점(전혀 없었다 ~ 항상 그랬다)으로 평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각 네 가지의 부정정서와 긍정정서를 평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정정서는 공포, 화남, 슬픔 및 죄의식이고 긍정정서는 애정, 기쁨, 만족감 및 자부심이다. 이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부정정서 .75였고 긍정정서 .79였다.

삶의 만족. 연구 대상자가 삶에 만족하는 수준은 Diener, Emmons, Larsen와 Griffin(1985)의 삶의 만족 척도(SWLS: 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조명한과 차경호(1998)이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김정호(2007)가 일부 수정하고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대체로 나의 삶은 나의 이상(ideal)에 가깝다”, “나는 내 삶에 만족한다” 등과 같은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7점(매우 반대한다 ~ 매우 찬성한다)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수준은 .86이었다.

주관적 행복.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행복감, 즉 주관적 행복은 Lyubomirsky와 Lepper(1999)의 주관적 행복 척도(SHS: Subjective Happiness Scale)를 김정호(2007)가 번안한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피검자 자신의 행복 상태와 관련하여 진술되어 있는 4문항을 7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피검자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이 행복한 사람인지, 주변사람들과 비교할 때 자신이 더 혹은 덜 행복한지 등을 평정한다. 본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 수준은 .85이었다.

결 과

고등학생의 부모화 및 자아탄력성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먼저 부정정서는 긍정정서나 삶의 만족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주관적 행복($r=-.42, p<.001$)과도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리고 긍정정서와 삶의 만족은 주관적 행복과 정적으로 관계하고 있어 주관적 웰빙 구인의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등학생의 부모화와 자아탄력성이 부정정서나 긍정정서, 삶의 만족 그리고 주관적 행복과 같은 주관적 웰빙 요인들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분석하였다(표 1). 상관분석 결과, 고등학생의 부모화는 주관적 웰빙 변인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부모화는 부정정서($r=.30, p<.001$)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긍정정서($r=-.15, p<.01$), 삶의 만족($r=-.16, p<.001$) 및 주관적 행복($r=-.15, p<.01$)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하지만 부모화의 하위변인 별로 살펴보면 물리적 부모화와 정서적 부모화가 긍정정서나 삶의 만족과 주관적 행복과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화 요인 중에 가족 내에서의 불공평이 부모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자아탄력성은 고등학생 주관적 웰빙 요인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자아탄력성은 부정정서($r=-.54, p<.001$)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긍정정서($r=.48, p<.001$), 삶의 만족($r=.43, p<.001$) 및 주관적 행복($r=.52, p<.001$)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자아탄력성의 모든 하위 요인이 주관적 웰빙 변인과 유의한 관계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은 주관적 행복과 25% 이상의 변량을 공유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부모화는 자아탄력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r=-.51, p<.001$. 부모화의 하위변인들 모두 자아탄력성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앞서 서론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아탄력성이 개인의 기질적 내적 특성일 수도 있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일 수도 있어(Masten et al., 1990) 서로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부모화가 자아탄력성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부모화와 자아탄력성의 상관의 유의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와 주관적 웰빙 사이에서 매개효과보다는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고등학생의 주관적 웰빙에 대한 부모화 및 자아탄력성의 영향

고등학생의 부모화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조절변인의 역할을 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즉, 독립변인(A)이 종속변인(C)에 영향을 미치지만 조절변인(B)이 독립변인과 작용하여 종속변인의 변화량을 좌우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의 부정적 영향이 자아탄력성에 의해 조절되어 청소년의 주관적 웰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

정하였다.

이를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먼저 고등학생의 부모화와 자아탄력성을 차례로 투입한 후에 이 둘 간의 교차항을 투입하고 준거변인인 주관적 웰빙을 설명하는 변량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부모화와 자아탄력성 두 변인의 교차항을 함께 투입할 때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 변인의 점수를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한 것으로 구한 교차항 값을 투입하였다. 먼저, 주관적 웰빙 요인 중에 부정정서를 준거변인으로 한 분석 결과와 긍정정서를 준거변인으로 한 분석 결과를 함께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부모화는 부정정서를 9.0%정도 설명하고($\beta=.30, p<.001$), 자아탄력성을 추가하면 그 설명량이 20.1%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52, p<.001$. 그러나 부모화와 자아탄력성의 교차항은 부정정서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여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화는 고등학생이 경험하는 긍정정서를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beta=.15, p<.01$), 자아탄력성도 부모화에 더해 긍정정서의 변량을 22.3%가량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55, p<.001$. 그리고 부모화와 자아탄력성의 교차항을 투입했을 때 R^2 증가분이 긍정정서를 유의하게 설명하여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beta=-.11, p<.05$.

삶의 만족을 준거변인으로 한 분석에서도 부모화는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으며($\beta=.16, p<.001$), 자아탄력성도 부모화에 더해 삶의 만족의 변량을 16.4%나 설명하였다(표 3), $\beta=.47, p<.001$. 또한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화와 자아탄력성의 교차항도 삶의 만족을 유의하게 설명하여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beta=-.17, p<.001$.

고등학생의 부모화는 주관적 행복감을 유의하

표 1. 고등학생의 부모화 및 자아탄력성과 주관적 웰빙 변인의 상관행렬(N=434)

변인	부정정서	긍정정서	삶의 만족	주관 행복	물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불공평	부모화	M(SD)
긍정정서	-.31***								
삶의 만족	-.34***	.40***							
주관 행복	-.42***	.52***	.60***						
물리적 부모화	.15**	.01	-.02	-.01					23.50(6.55)
정서적 부모화	.22***	-.05	-.08	-.01					26.52(5.64)
불공평	.38***	-.32***	-.28***	-.34***					41.57(6.75)
부모화	.30***	-.15**	-.16***	-.15**					91.59(15.93)
자신감	-.46***	.39***	.39***	.46***	-.30***	-.35***	-.51***	-.46***	27.21(7.10)
대인관계 효율성	-.40***	.39***	.30***	.37***	-.32***	-.35***	-.49***	-.46***	26.49(6.89)
낙관적 태도	-.54***	.54***	.47***	.58***	-.26***	-.23***	-.58***	-.43***	34.88(7.59)
분노조절	-.45***	.21***	.21***	.24***	-.26***	-.30***	-.38***	-.37***	6.60(2.18)
자아탄력성	-.54***	.48***	.43***	.52***	-.33***	-.35***	-.59***	-.51***	95.17(20.64)
M(SD)	14.11(5.28)	18.43(4.92)	19.76(6.32)	18.76(5.22)					

* $p<.05$, ** $p<.01$, *** $p<.001$.

게 설명하고($\beta=-.15, p<.01$), 자아탄력성도 부모화에 더해 주관적 웰빙의 변량을 26.4%까지 설명하고 있었다, $\beta=.60, p<.001$. 부모화와 자아탄력성의 교차항도 주관적 행복을 유의하게 설명하여 조절 효과를 보였다, $\beta=-.16, p<.001$.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에 대한 부모화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1에서, 주관적 행복에 대한 두 변인의 상호작용효과는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관적 행복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상위 25%의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화가 약한 집단($M=21.42, SD=4.94$)과 강한 집단($M=22.52, SD=4.35$)간에 주

관적 행복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자아탄력성이 하위 25%의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화가 강한 집단($M=13.70, SD=3.70$)보다 약한 집단($M=15.79, SD=5.26$)의 주관적 행복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F(1, 108)=4.32, p<.05$. 이는 주관적 행복과 관련하여 자아탄력성이 강한 고등학생은 부모화의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지만 자아탄력성이 약한 고등학생은 부모화의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주관적 웰빙에 대한 부모화의 부정적 효과에 자아탄력성의 조절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2. 부정/긍정정서에 대한 부모화와 자아탄력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N=434$)

투입순서	예언변인	준거변인: 부정정서			준거변인: 긍정정서			
		β	F	R^2 증가분	예언변인	β	F	R^2 증가분
1	부모화(A)	.30***	42.48***	.090	부모화(A)	-.15**	10.07**	.023
2	자아탄력성(B)	-.52***	88.47***	.201	자아탄력성(B)	.55***	70.35***	.223
3	A × B	-.02	58.94***	.000	A × B	-.11*	49.69***	.011

* $p<.05$, ** $p<.01$, *** $p<.001$.

주. 교차 항은 두 변인의 값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하여 구한 것이고, 제시된 F 값은 각 단계에서의 회귀모형 전체의 F 값임.

표 3. 삶의 만족과 주관적 행복에 대한 부모화와 자아탄력성의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N=434$)

투입순서	예언변인	준거변인: 삶의 만족			준거변인: 주관적 웰빙			
		β	F	R^2 증가분	예언변인	β	F	R^2 증가분
1	부모화(A)	-.16**	10.86**	.025	부모화(A)	-.15**	9.55***	.022
2	자아탄력성(B)	.47***	50.26***	.164	자아탄력성(B)	.60***	86.47***	.264
3	A × B	-.17***	39.60***	.027	A × B	-.16***	65.13***	.026

** $p<.01$, *** $p<.001$.

주. 교차 항은 두 변인의 값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하여 구한 것이고, 제시된 F 값은 각 단계에서의 회귀모형 전체의 F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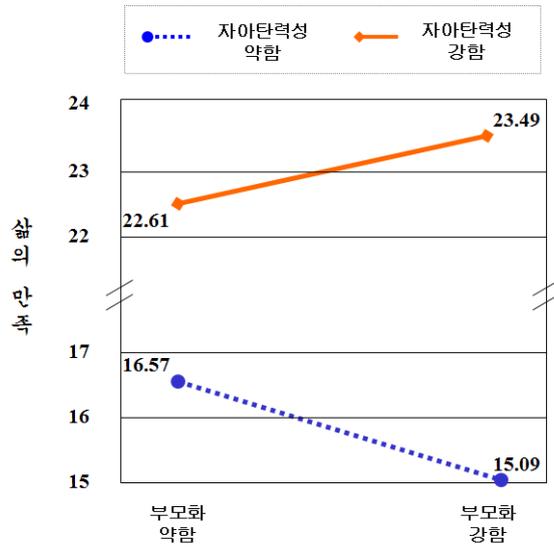


그림 1. 삶의 만족에 대한 부모화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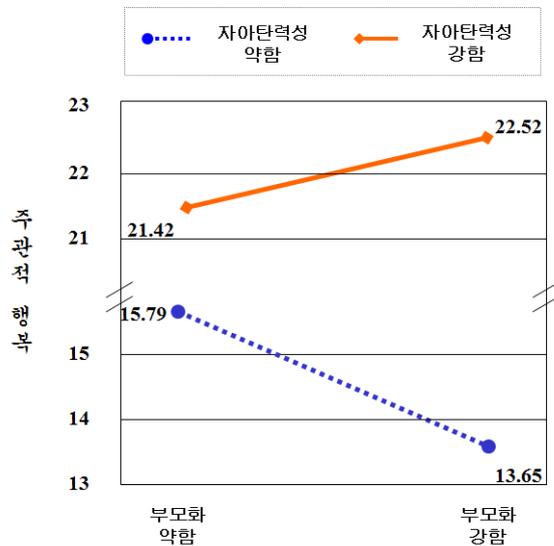


그림 2. 주관적 행복에 대한 부모화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모화와 자아탄력성이 주관적 웰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하고, 부모화와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조절효과를 분석하였고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다.

먼저 고등학생의 부모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면, 물리적 부모화(23.50)와 정서적 부모화(26.52)의 평균값이 평정척도 중간 값의 합인 30점보다 낮아 물리적이거나 정서적 부모화 경향이 높지 않았으나 불공평 요인의 경우 평균값이 41.57점을 보여 이들이 느끼는 가정 내 불공평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불공평이 형제 간 차별, 더 구체적으로 출생 순위 별 차별이나 아들과 딸 간의 성별의 차별, 혹은 부모와 자녀 간 불공평 어느 것에 의한 것인지에 관해서 추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안재순, 정성진과 서경현(2011)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느끼는 불공평에 성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부모화의 불공평 요인의 원인이 가정 내 성차별은 아닐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가정 내 불공평이 심도 깊게 탐구되어야 한다.

고등학생의 부모화가 모든 주관적 웰빙 요인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지만, 부모화 요인 중에 물리적 부모화와 정서적 부모화는 주관적 웰빙 요인 중에 부정정서와만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특별히 부모화 요인 중에 불공평이 주관적 웰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부모화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과 2.2% 변량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그 하위요인인 불공평은 주관적 행복과 11.6%의 변량을 공유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선행연구(강원희, 유순화, 윤경미, 2010; 최명선, 강지희, 2008)에서도 부모화 하위요인 중에 불공평이 심리적 부적응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최명선과 강지희(2008)의 연구에서는 물리적 부모화와 정서적 부모화도 불안과 같은 부정정서와는 정적으로 관계되어 있었으나, 부모화 하위요인 중에 불공평만이 우울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할 때 청소년들이 가정 내에서 공평하지 않게 취급되어지는 것, 엄밀히 말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불공평하게 취급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주관적 웰빙 수준도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아동상담이나 청소년상담 전문가들은 상담 중에 가정 내 불공평을 평가하고 중재할 필요가 있으며 연구자들은 가정 내 불공평이 어떤 방식으로 청소년의 정신적 문제를 야기하고 웰빙을 위협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자아탄력성은 고등학생의 주관적 웰빙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자아탄력성 하위요인 모두가 주관적 웰빙 요인 모두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의 부정정서와 29.2%의 변량을, 주관적 행복과는 27.0% 정도의 변량을 공유하고 있었다. 자아탄력성이 개인의 부적응이나 정신적 문제들과 부적의 관계가 있고(Garney & Sreitman, 1974; Tugade et al., 2004),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스트레스원에 완충작용을 하는 것(서경현, 최인, 2010)으로 나타난 연구가 있었지만, 이 연구의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웰빙에도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자아탄력성이 정신건강 변인들과 정적으로도 관계하는 것은 물론 부적으로 관계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Burns, 1994; Luthar et al., 1997)

도 있었다. 이는 앞서 서론에 언급한 것처럼 자아탄력성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이기 때문일 수 있다(Masten et al., 1990). Hunter와 Chandler(1999)는 자아탄력성이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연결을 끊고 부적절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키는 방식을 하게 하기 때문에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에게서 정신병리 요인이 발견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 차원에서 Egeland와 Kreutzer(1992)는 자아탄력성이 아동기의 정신적 문제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박지혜 등(2005)의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대학생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자극들을 덜 지각했던 것이 인지적 차원이 아닌 정서적 차원일 수 있다. 그렇다면 자아탄력성이 주관적 웰빙뿐 아니라 심리적 웰빙과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주관적 웰빙 요인 중에 긍정정서, 삶의 만족 및 주관적 행복에 부모화와 자아탄력성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이는 부모화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자아탄력성이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스트레스원이 부정적인 스트레스 반응으로 나타난 것을 자아탄력성이 완충시킬 수 있음(서경현, 최인, 2010)을 다시 한 번 재검증한 것이다. 특히 이 연구의 결과는 자아탄력성이 성장기에서의 환경적 문제가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완충시켜 줄 수 있다는 가정(김유진, 김영희, 2009; Garmezy & Sreitman, 1974)을 지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본 연구를 통하여 부모화가 강하지만 자아탄력성이 강한 고등학생의 삶의 만족이나 주관적 웰빙 수준이 가장 높았던 것은 가정 내에서 불공평이나 부모화 된 환경적 영향이 개인 내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으며, 오히려 가정환경의 문제를 자아탄력성이 개인의 적응적 능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부모화 되는 환경에서 자아탄력성이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도 성장기에서의 정신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되는데 자아탄력성이 기여하는 것(Egeland & Kreutzer, 1992)이기 때문일 수 있다. 반대로 자아탄력성이 약한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화가 많이 될 경우 삶의 만족과 주관적 행복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는 그런 청소년의 경우 삶의 질이 떨어지고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감 수준이 매우 낮은 자아탄력성이 낮으면서 부모화 경향이 강한 청소년의 정신적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심리전문가나 상담전문가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아탄력성을 평가하여 개인의 웰빙이나 행복 수준을 예측하는데 매우 효율적일 수 있으며, 자아탄력성을 증진시켜 개인의 웰빙 수준이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Howard와 Johnson(1999)은 자아탄력성에 타고난 기질적 측면도 있지만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능력 차원으로 보았다. 그런 차원에서 Lyubomirsky와 Della Porta(2008)는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그런 방법으로 개인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 더 앞서 아동기부터 개인이 가진 자아탄력성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탄력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할 필요도 있다. 한 연구(박지혜, 이하나, 정현주, 이기학, 2005)에서는 자아탄력성이 스트레스원을 덜

지각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자아탄력성을 개발하게 되면 성장기에서의 경험하기 쉬운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Calhoun과 Tedeschi(1999)은 부모화 된 청소년들에게 외상에 기반을 둔 상담을 권한 바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부모화 된 고등학생의 웰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인적 특성인 자아탄력성이 부모화의 영향을 완충시켜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관적 웰빙에 대한 부모화와 자아탄력성의 역할을 탐구하였기에 이 결과를 임상 집단에 까지 일반화 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알코올 중독자나 중환자 혹은 정신적 문제를 가진 부모를 둔 청소년들이 부모화 될 가능성이 크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Bowlby, 1980), 임상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부모화에 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부모화 되어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문제와 이를 중재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화의 문제는 임상집단과 비임상집단으로 구분되어 연구되고 중재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영희, 서경현 (2011). 병원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반응 및 서비스 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2), 329-345.
- 강원희, 유순화, 윤경미 (2010). 청소년의 부모화 경험과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8(3), 357-379.
- 김유진, 김영희 (2009). 일상생활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아동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 123-142.
- 김정호 (2007). 삶의 만족 및 삶의 기대와 스트레스 및 웰빙의 관계: 동기상태이론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 325-345.
- 박지혜, 이하나, 정현주, 이기학 (2005). 대학생의 자아탄력성과 행복감이 스트레스 지각에 미치는 영향. 2005년 한국심리학회연차학술대회논문집, 474-475.
- 박현정, 천성문, 주동범 (2011). 중학생의 부모화 경향성과 부모양육태도 지각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 경향성을 매개변인으로. *직업교육연구*, 30(2), 35-49.
- 박현진 (1996).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경현, 김성민 (2009). 대학생의 스트레스와 문제음주의 관계에서의 자아탄력성의 역할. *한국알코올과학지*, 10(2), 33-43.
- 서경현, 김정호, 유제민 (2009). 성격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Big 5 성격요인과 BAS/BIS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1), 169-186.
- 서경현, 최인 (2010). 노인환자 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원, 강인성 및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반응.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2), 309-326.
- 서은국, 구재선, 이동귀, 정태연, 최인철 (2010). 한국인의 행복 및 정신건강 계수: 한국인의 행복지수와 그 의미.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13-232.
- 안재순, 정성진, 서경현 (2012). 부모의 문제음주와 고등학생 자녀의 부모화 간의 관계: 성별과 종교 유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3), 245-266.
- 유성경, 홍세희, 최보운 (2004). 가정의 위험요소와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 탄성력, 애착, 실존적 영성의 매개 효과 검증. *한국교육심리연구*, 18, 393-408.
- 이경순, 서경현 (2011). 대학생의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부모와의 갈등과 주관적 웰빙: 원한 동기의 매

- 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3), 595-608.
- 정태연, 최상진, 김효창 (2002). 아동과 어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 성격적, 관계적 및 과업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51-82.
- 조명환, 차경호 (1998). 삶의 질에 대한 국가간 비교. 서울: 집문당.
- 조은영 (2004). 부모화 된 자녀의 심리적 특성 및 가족 내 영향력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은영, 정태연 (2004). 자녀의 부모화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 43-62.
- 최명선, 강지희 (2008). 부모화 경험이 청소년의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1, 43-53.
- 한민, 최인철, 김범준, 이훈진, 김경미, 류승아 (2012).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 타 연령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9(5), 217-235.
- Bekir, P., McLellan, T., Childress, A. R., & Gariti, P. (1993). Role reversals in families of substance abusers: A transgenerational phenomenon.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Addictions, 28(6)*, 613-630.
- Block, J. (1961). *The Q-Sort Method in Personality Assessment and Psychiatric Research*. Springfield, Illinois: C.C. Thomas. (Reprinted by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Palo Alto, California in 1978)
- Block, J., & Kreman, A. M. (1996). IQ and ego 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6-361.
- Boszormenyi-Nagy, I., & Spark, G. (1973). *Invisible loyalties: Reciprocity in intergenerational family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 Bowlby, J. (1980). *Loss: Sadness & Depression. Attachment and Loss* (vol. 3); (International psycho-analytical library no.109). London: Hogarth Press.
- Bowlby, J. (1980). *Loss: Sadness & Depression. Attachment and Loss* (vol. 3); (International psycho-analytical library no.109). London: Hogarth Press.
- Burns, T. (1994). *From risk to resilience*. Dallas, TX: Marco-Polo Press.
- Byng-Hall, J. (2002). Relieving parentified children's burden in families with insecure attachment patterns. *Family Process, 41*, 375-388.
- Calhoun, L. G., & Tedeschi, R. G. (1999). *Facilitating post-traumatic growth: A clinician's guide*. Mahwah, NJ: Lawrence Erlbaum.
- Carver, C. S. (1998). Resilience and thriving: Issues, models and linkages. *Journal of Social Issues, 54*, 245-266.
- Chase, N. D., Deming, M. P., & Wells, M. C. (1998). Parentification, parental alcoholism, and academic status among young adult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6(2)*, 105-114.
- Dawson, F. (1980). *The parental child in single and dual parent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eorgia State University, Atlanta.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 542-575.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Suh, E.,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Egeland, B., & Kreutzer, T. (1992).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maternal stress and protective factors on the development of high risk children. In E Cummings, A Greene, K

- Karraker (Eds.). *Life-span perspectives on stress and coping*. New York: John Wiley.
- Gardner, R. A., Sauber, S. R., Lorandos, D. (2006). *The International Handbook of Parental Alienation Syndrome: Conceptual, Clinical And Legal Considerations*.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Publisher, LTD.
- Garnezy, N., & Streitman, S. (1974). Children at risk: The search for antecedents to schizophrenia. Part I: Conceptual models and research methods. *schizophrenia Bulletin*, 8, 14-90.
- Hunter, A. J., & Chandler, G. E. (1999). Adolescent resilience. *Th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31, 243-247.
- Jones, R., & Wells, M. (1996). An empirical study of parentification and personalit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4, 145-152.
- Jurkovic, G. J., Jesse, E., & Goglia, L. (1991). Treatment of parental children and their families: Conceptual and technical issue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9(4), 302-315.
- Jurkovic, G. J., Thirkield, A., & Morrell, R. (2001). Parentification of adult children of divorce: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2), 245-257.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067-1079.
- Luthar, S., Burak, J., Cicchetti, D., & Weisz, J. (1997).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perspectives on adjustments, risk, disorder*.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yubomirsky, S., & Della Porta, M. (2008). Boosting happiness, buttressing resilience: Results from cognitive and behavioral interventions. In J. W. Reich, A. J. Zautra, J. Hall (Eds.). *Handbook of adult resilience: Concepts, methods, and applications*. New York: Guilford Press.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 137-155.
- Masten, A. S., Best, K. M., & Garnezy, N. (1990). Resilience and development: Contributions from the study of children who overcome adversity.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2, 425-444.
- McMahon, T. J., & Luthar, S. S. (2007). Defining characteristics and potential consequences of caretaking burden among children living in urban povert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7, 267 - 281.
- Ong, A. D., Bergeman, C. S., Bisconti, T. L., & Wallace, K. A. (2006). Psychological resilience, positive emotions, and successful adaptation to stress in later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1, 730-749.
- Peris, T. S., Goeke-Morey, M. C, Cummings, E. M., & Emery, R. E. (2008). Marital conflict and support seeking by parents in adolescence: Empirical support for the parentification construc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 633-642.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Psychology*, 52, 141-166.
- Sessions, M. W., & Jurkovic, G. J. (1986). *The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Available from Gregory J. Jurkovic, Dept. of Psychology, Georgia State University. GA, Atlanta: University Plaza.

- Torsheim, T., & Wold, B. (2001). School-related stress, school support, and somatic complaints: a general population study.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6*, 293-303.
- Tugade, M. M., Fredrickson, B. L., & Barrett, L. F. (2004). Psychological resilience and positive emotional granularity: Examining the benefits of positive emotions on coping and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72*, 1161-1190.
- Wells, M., & Jones, R. (2000).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shame-proneness: A preliminary study.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1), 19-28.
- West, M. L., & Keller, A. E. (1991). Parentification of the child: A case study of Bowlby's compulsive care-giving attachment pattern.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45*, 425-431.

원고접수일: 2012년 10월 9일

게재결정일: 2012년 12월 22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12. Vol. 17, No. 4, 1027 - 1043

The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on Parentific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of High School Students

Kyung-Hyun Suh

Sahmyook University

Jae-Soon An

MyungJi University

Giye Kim

Brigham Young University-Hawaii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fication, ego-resilience and subjective well-being. Further,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on parentifica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nts were 434 (260 males and 204 females) high school students, whose average age was 16.18 (SD=1.00). Parentification, ego-resilience, negative/positive emotion, life satisfac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were measured for this study. Results revealed that parentification of high school students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Physical and emotional parentifications were positively correlated only with negative emotion. Unfairness, a sub-factor of parentification, was closely related with subjective well-being of high school students. Besides, all sub-variables of ego-resilienc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ll variables of subjective well-being. Interaction effects of parentification and ego-resilience in positive emotion, life satisfaction, and subjective happiness were also found. This means that ego-resilience could moderate negative effects of parentification on subjective well-being. The influences of parentification and the roles of ego-resilience in adolescents' well-being were discussed with previous studies, and the direction for further studies and clinical meaning of this study were recommended.

Keywords: adolescent, parentification, ego-resilience, happiness, well-being